

# 이스라엘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요? < 신학 > 기사 본문

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

2011년 1월 20일



기자 회원들의 글은 <뉴스앤조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집트 탈출

이스라엘 핑켈스타인(Israel Finkelstein)은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이스라엘 핑켈스타인, 닐 애셔 실버먼 공저, 오성환 옮김, 까치 펴냄, 84쪽)에서 이집트 탈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신앙고백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문자주의라고 매도하면서 현대인의 지성에서 벗어난 것인 양 몰아간다. '과연 그러한가?' 비판적으로 살펴야 한다.

##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어디에선가 이동해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다. 그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자. 물론 성경의 내용도 함께 사용할 것이다.

이집트의 왕조에서 15~16왕조(주전 1630~1540경)를 히소스 왕조라고 부른다. 히소스란 말의 기원은 '외국 땅의 통치자'를 뜻하는 이집트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주후 1세기)가 인용한 마네토의 서술에 나온다. 마네토는 새로운 통치자들을,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그 땅을 빼앗은 침략자로 묘사하고 있다. 아시아 계열의 이 왕조의 통치를 이집트인들은 받아들였다. 이 왕조는 이집트의 남쪽만 차지하였고 북쪽은 방임하였다. 같은 시기에 제17왕조는 테베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이 시기에 셈족 계열인 하비루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한다. 이 단어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도 등장한다.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유목 민족에 대한 묘사이다. 주전 18세기에서 13세기에 걸친 기간 동안의 아마르나 서신들(Amarna letters : 시리아-팔레스틴의 군소 국왕들이 이집트 왕궁에 보낸 외교 서신)에서 하비루(Habiru)의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유대인들은 이 하비루의 한 종족이다. 그들은 야곱의 혈손들로서 처음에 70명이 이집트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요셉은 그들을 이집트로 이끌어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한다. 고센의 다른 이름은 람세스다(창 47:11). 요셉은 그들이 이집트의 중앙정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다. 중앙정권으로 진출하면 그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신 신의 목적을 벗어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히소스 왕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센 땅에서 유목민으로서의 생활을 하였다.

## 새 왕조로 인한 변화

야곱의 혈손들이 이집트에 와서 정착한 지 300여 년의 기간이 흘렀을 때에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제18왕조, 주전 1539~1292경)가 생겨나게 된다. 새 왕조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통일된 이집트인의 왕조를 이집트 땅에 세우게 된다. 성경은 이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더니(출 1:8)"라고 적고 있다. 이는 요셉을 친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새 왕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 시대에 자신들의 모든 땅을 힉소스 왕조에게 바쳐야 했기에 요셉에 대해 친밀할 수가 없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포함된 하비루들은 위험 세력이다. 힉소스 왕조와 친밀한 그들이 힉소스 왕조를 재건하려는 세력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억압하고 노동력으로 활용한다. 성경은 새 왕조가 유대인들에게 국고 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였다고 한다. (출 2:11)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고센의 다른 이름이 람세스임을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하여 그 거주지를 성벽으로 둘러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왕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이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취한 조치이다.(출 1:10) 그런 엄청난 노동력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멤피스의 아나스타시라는 파피루스에는 노동자의 벽돌 만드는 할당량이 적혀 있다. 노동자 40인의 대장은 8만 개의 벽돌을 하루에 바쳐야 했다. 그것은 노동자 한 명당 하루에 2,000개씩을 만들어야 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 숫자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노동자들이 중노동에 시달렸음을 알려 주는 증거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노역을 하면서 약 100여 년의 기간을 보내게 된다. 성경은 왕조가 바뀐 후의 어느 시점에 태어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집트 탈출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세가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 노예로 살았음을 생각하면 100여 년은 적절하다. 새 왕조가 들어서고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은 주전 1430년경이 된다.

제18왕조의 5대 왕인 투트모스 3세 때에 많은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 이집트의 국력은 절정에 이른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히타이트가 모두 이집트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물을 보내왔을 정도이다. 그런데 투트모스 3세는 죽기 2년 전에 18세 된 아들 아멘호테프 2세(주전 1426~1400 재위)를 공동 통치자로 임명한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흔히 볼 수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집트 탈출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주전 1450년에서 1425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당시의 역사적 정황과 성경의 기록이 일치하는 시기이다. 투트모스 3세가 살아 있으면서 18세 된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게 된 이유가 이집트에서 있었던 재앙과 홍해 사건의 여파로 보면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집트 탈출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이 유대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8왕조에서 함께 고역을 하던 하비루들이 탈출에 동참하였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출 12:38)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여서 함께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다. 이집트 탈출 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수는 그러한 연유이다. 물론 숫자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 1,000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레프가 그 당대에는 천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 이집트 탈출의 후대설

후대설은 주전 13세기에 이집트 탈출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후대설의 근거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람세스라는 지명이다. 이집트의 몇몇 자료는 피-람세스(람세스의 집)라는 도시가 주전 1279년부터 1213년까지 재위한 이집트의 위대한 왕 람세스 2세 시대에 삼각주에 건축되었으며 이 도시 건설에 셈족이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셈족이 고용되었다가 아니라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람세스 건축과 연결하여 13세기 설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의 람세스가 람세스 2세에 의해 건립된 성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냥 같은 지명이기에 같은 사건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람세스 2세의 아들인 파라오 메르넵타가 가나안에 원정한 사실을 기록한 비석이다. 이는 성경 이외의 기록 문서로서 가장 일찍 이스라엘을 언급한 것이다. 13세기 말의 것이다. 그 내용은 가나안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민족을 대량 학살하여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의 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과장되었을 것이지만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특정 민족 집단이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 내용이 곧 주전 13세기에 이집트 탈출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 이전에 이집트 탈출이 이루어지고 가나안에 정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집트 탈출을 주전 15세기로 보면 메르넵타의 가나안 원정은 성경의 사사 시대에 해당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신의 말씀을 어기고서는 여러 이민족들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셋째, 고대의 초기 이스라엘인들과 관련된 수십 개의 주거 유적이 그 무렵의 가나안 산간 지방에서 발굴되었다고 한다.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삿 1:19)." 주거 유적은 성경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는 성경의 기록이 후대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부족함이 없다.

## 핑컬스타인의 주장과 평가

핑컬스타인은 이집트 탈출에 있어서 두 주장을 함께 살피고 각 주장에 따른 유물 해석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후대설만을 받아들이고는 그 후대설에 따라서 유물들을 해석하고 이집트 탈출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성경의 내용들은 고고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핑컬스타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방랑 생활에 관한 성경의 설명에 언급된 다른 주거지들과 종족들은 실재했던 것일까?"(83쪽)라고 묻는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몇 차례의 전쟁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네게브에 살았던 가나안의 왕 아랏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일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보복을 한다. (민 21:1~3)

그는 "브엘세바 동쪽에 있는 텔 아랏의 유적을 근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굴한 결과 크기가 대략 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초기 청동기시대 도시의 유적 몇 개와 철기시대 요새 유적 하나가 발견되었으나 후기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나오지 않았다. 후기 청동기시대

에는 인간이 살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다. 브엘세바 계곡 전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아랏이라는 도시는 후기 청동기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적는다. "상황은 동쪽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도 동일하다. 이 지방에서 유랑 생활을 했던 아모리족의 왕 시훈의 수도인 헤스본에서 불가피하게 전투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민 21:21~25, 신 2:24~5, 사 11:19~21)

고대 헤스본이 위치했던 암만 남쪽의 텔 헤스반을 몇 차례 발굴한 결과 청동기시대의 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마을의 유적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모압인, 암몬인을 언급하면서 후기 청동기시대에는 농경 인구가 정착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어서 "출애굽기에 언급된 지명들은 실제로 존재했다. 몇몇 유적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훨씬 앞선 시대나 훨씬 나중 시대에 주민이 거주했다. ... 여러 사건 속에 등장한 것으로 기록된 바로 그 시대에 해당 장소에 인간이 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집트 탈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다"(84쪽)고 적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이스라엘이 주전 13세기에 이집트에서 탈출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주전 15세기 설에 따라서 읽으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주전 15세기에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전쟁을 하여 어떤 곳은 멸절되어 주전 13세기에는 인간들이 살지 않았다는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과연 핑켈스타인이 이집트 탈출에 있어서 주전 15세기 설에 대해 몰랐을까? 과연 그가 이집트 탈출에 있어서 주전 15세기 설에 따른다면 위의 내용으로 글을 적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는 자신의 글이 철저하게 고고학적인 연구의 결과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데에 고고학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는 데에 유리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말이다.

이집트에 하비루가 있었고 그들이 18왕조에서 노예로서 고역에 종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어느 시점에 그들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유랑하였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에서 이집트가 자체적으로 그들을 내어보냈을 여지는 전혀 없다. 고대 세계에서 그들은 너무도 중요한 노동력이기에 집단적으로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그 땅을 순순히 내어 줄 리가 없다. 집단적으로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하비루가 창칼을 들고 고역을 시키는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창칼을 든 이집트의 군사력보다 더 큰 능력의 개입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들과의 전쟁은 필수이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비루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창칼을 들고 자기 땅을 수호하려는 가나안의 원주민들보다 더 강한 힘의 개입으로만 가능하다.

##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

그 책에는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에서는 다른 민족이 살던 지역과 달리 돼지 뼈가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에 대해 원조 이스라엘인들이 돼지고기를 금기 식품으로 정한 것은 그들의 적인 주변의 부족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주민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구분되는 음식 조리 관행과 식생활 풍습은 민족 간의 경계선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일신교 숭배와 출애굽 및 신과의 언약에 관한 전통은 훨씬 후대에 덧보태진 것이 분명하다. 상세한 율법과 식생활 규칙을 담은 성경 원전이 만들어지기 500년 전에 이스라엘인들은 돼지고기를 금기 식품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대의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인의 문화 관습을 지속시키고 있다." (148쪽)

원조 이스라엘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저자는 일차적으로 추측을 한다. 그가 제시한 가능성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다. 적들인 주변의 부족들이 돼지고기를 먹었기에 그들과 다른 민족임을 드러내기 위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같은 고기를 먹으면 같은 민족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어떻게 다른 민족임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인가? 아무리 우리 눈앞에 없는 고대인이라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없는 사람들로 만들 권리는 없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주해 온 민족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나안에 살았던 현지 주민이라고 주장하였다. (147쪽) 그 말은 가나안의 민족들과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혈통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사는 지역도 같았는데,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스스로 자신의 주장하는 바와 모순되는 글을 적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뒤에서는 그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는 일신교 숭배와 이집트 탈출 및 신과의 언약에 관한 전통은 훨씬 후대에 덧보태어졌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입장의 반영이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자유주의 신학에 토대를 둔 현대 신학자들의 입장일 뿐이다.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책들이 모세에 의해 쓰였다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이 입장에 의하면 원조 이스라엘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아주 잘 설명된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언약의 한 내용으로 돼지고기를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면에서는 잘 지켰다. 돼지고기 외에도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있었기에 얼마든지 먹지 않을 수 있었다.

## 결론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고고학적인 유물이 없다는 주장은 탈출 시기를 잘못 잡았기 때문일 뿐이다.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담긴 문제를 보아야 한다. 성경의 진술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성경의 진술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말이다. 그렇기에 그 내용을 상징이라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할 이유는 없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